



평양 종합 병원



PYONGYANG GENERAL HOSPITAL



금수강산



6

2026년

루계 제 442호 월간

표지: 평양종합병원을 찾은 동포들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도의 명당자리에 새로 일떠선 평양종합병원을 찾은 재중조선인 청년협회축하단 성원들의 얼굴마다에 기쁨이 넘쳐흐른다.

사진 김영호



2 || 인민의 애국열의를 배가해주시어

일화

6 || 대중운동들이 전하는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

7 || 옥돌공예 《소나무와 학》

8 || 성과에서 더 큰 성과어로, 변혁에서 더 큰 변혁어로

대담

11 ||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을 가속화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12 || 소비에트냐, 인민혁명정부냐?

고국방문

14 || 흥분과 걱정속에

조국의 품에 안겨

18 ||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것은

인상기

20 || 창창하다

20 || 산천도 그 산천이건만

교향소식

21 || 젊어지는 고장, 강동군을 찾아서

26 || 은산종이공장

28 || 생산장성의 비결

30 || 지능계발교육을 잘하는 유치원

32 || 축복받은 학생소년들

34 || 누구나 노력하면 이룰수 있다

36 || 인기를 끄는 화초공예품들

취재길에서 만난 사람들

38 || 발명가는 라고난 사람이 아니다

40 || 두각을 나타내는 신진축구명수

42 || 이름난 특산물 백두산들쪽

44 || 천인공노할 일제의 죄악

조국의 력사유적을 찾아

46 || 경효왕릉

48 || 우리 인민은 대대손손 백두산을 숭상해왔다

51 || 민족유산 쇠뇌

전설

52 || 등산놀이

54 || 개성첨성대

편집: 김광수, 최은혁, 서철남, 문송연



인민의 애국열의를 배가해주시여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지난 5년간은 애국자집단, 애국자의 대부대가 자라난 나날이었다.

일찌기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 나가는데서 대중운동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 하시고 광범한 군중을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 혁신으로 불러일으키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그이의 숭고한 뜻은 전체 인민의 애국열의와 창조정신을 배가시켜준 기치로 되었다.

사회주의애국탄증산운동을 과감히 전개한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자강도공급탄광의 탄부들은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수행하면서도 많은 석탄을 증산하여 전인민적애국운동의 열기를 고조시키었다.

은파광산 광명갱의 광부들도 2023년 광물생산 계획을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돛까지 앞당겨 완수 하고 연말까지 1만t의 광물을 증산한데 이어 해마다 전례없는 기록을 창조하며 애국광부 집단의 영예를 떨치었다.

인민에 대한 령도자의 믿음은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켰고 그 믿음속에서 인민은 조선사람의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지난해에 2024년 증산량의 10배에 달하는 수십만의 세멘트를 더 생산하였다.

자존심과 슬기, 힘과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지난해에 2024년 증산량의 10배에 달하는 수십만의

세멘트를 더 생산하여 기적적증산의 봉화를 지퍼 올릴수 있는것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과 믿음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당중앙위원회 2024년 12월전원회의장에서



2025년 11월 강원도인민들과 군인들의 애국충의심과 완강한 노력의 결과로 회양군민발전소가 준공하였다.

세멘트를 더 증산하려는 상원로동계급의 결의를 들으시고 상원이 들고일어나라고,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가 기수가 되어 기치를 들고나가면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따라선다고 하신 그이의 사랑과 믿음은 증산과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었다.

하기에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아름다운 세멘트생산과제를 수행하고 전인민적 총진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릴수 있었다.

강원도인민들이 이천과 문천, 세포와 평강, 고성과 회양일대에 련이어 발전소들을 일떠 세울수 있는것도 인민의 가슴속에 높뛰는 애국의 지향이 거창한 창조에로 이어지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앞에 무한히 성실한 근로자들을 귀중히 여기시는 그이께서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국가적인 중요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자신의 제일 가까이에 불러주시고 때로는 당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으시었다.

자애로운 아버이를 우러르며 온 나라 인민은 애국의 길에 인생의 값높은 영광이 있음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고 대중적인 애국운동, 기적적인 증산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런 속에서 지난 5년간 수천명의 사람들이 사회주의애국공로자의 영예를 지니였고 각지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애국탄부, 애국광부, 다수확 농민이 되었다.

2023년을 마감하는 시기에 제5차 전국 어머니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보아주고 특류영예군인의 안해로서 자식들을 훌륭히 키운 녀성들, 과학자가정, 교육자가정, 체육인가정의 여러명의 어머니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어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모두 헤아려주신분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였다. 그이께서 뜻깊은 연설을 마치시고 대회장을 나서시며 자식들을 많이 낳아 나라의 기둥감들로 내세운 모성영웅들의 손을 몸소 하나하나 잡아주실 때 참가자들모두가 녀성들의 마땅한 본분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였다.

이처럼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며 조국의 부강번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한가지라도 찾아 하는것이 우리 사회의 풍조로 되었다.

당 제8차대회이후 지난 5년간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원진출하여 당대회결정관철에 헌신한 사람들도 많다.

원산시의 가정부인들이 무궤도전차운전사로 탄원한데 이어 전국적으로 수많은 녀성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주요대상들로 진출한 사실을 놓고서도 가정의 행복보다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하려는 우리 인민들의 각오와 열망이 얼마나 고조되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이렇듯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믿음과 사랑이 있어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는 애국자들의 대오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것이다.

글 김지성, 사진 조선중앙통신



3대를 이어 숲을 가꾸어가는 윤산군산림경영소 산림감독원 강영수의 가정



수많은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들로 탄원하고있다. (강원도 원산시에서)

대중운동들이 전하는 이야기

김희일운동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1946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주기관구를 찾으시었다. 그때 기관차를 점검하던 김희일은 뜻밖에도 그이를 만나뵙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그의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며 그곳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었다.

그이께서는 지금 건국사업에서 큰 난관으로 되고있는것은 철도운수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서 기관차와 객화차가 부족하고 석탄도 없어 렬차운행에 큰 지장을 받고있다고, 그렇다고 누가 가져다주기를 기다릴수는 없다고, 우리는 모든것을 제힘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철도일군들은 나라에서 해결 해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애국적열정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모든 악조건을 용감하게 극복해나가야 하며 철도수송을 하루빨리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 다녀가신 후 김희일을 비롯한 정주기관구의 로동자들은 수십대의 기관차를 자체로 수리하였으며 안주탄광(당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애국운동에 떨쳐나섰다.

정주지구 철도로동계급은 1947년 1월 종업원 대회를 열고 이 애국운동에 호응하여나설것을 전국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호소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정주철도종업원들의 창발적애국운동을 《김희일운동》으로 부르도록 하시고 전군중적운동으로 발전시키도록 령도하시었다.

성장의 봉화

1998년 3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운 혁신의 봉화를 지펴올리실 웅지를 안으시고

나라의 철강재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었다.

이날 기업소의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철강재생산문제는 우리 조국의 운명, 사회주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여기서 기본열쇠는 성진제강련합기업소가 쥐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혁명이 난관과 시련을 겪을 때마다 강철로동계급이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서 강철로당을 받들어온것처럼 성강의 로동계급이 당의 호소에 호응하여 다시한번 천리마를 타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앞장에서 들고나갈데 대한 믿음을 주시었다.

그이의 믿음에 고무된 성강의 로동계급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대고조를 일으켜나갈것을 전국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에게 호소하였다.

성강의 봉화는 그이의 숭고한 애국헌신의 세계가 지펴올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였다.

몸소 발기하신 대중운동

2014년 11월 어느날 나라의 산림형편을 두고 마음쓰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었다.

양묘장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는 오늘 나라의 산림이 한심하게 된것이 너무 가슴 아파 중앙양묘장에 나왔다고, 지금 나라의 산림은 사람에 비유하여 말하면 습진과 같은 피부병에 걸린것이나 같다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자기 손이 틀가봐 크림을 바르는 사람은 많아도 나라의 산림형편을 놓고 가슴 아파하며 스스로 나무를 심는 사람은 얼마 없다고 하시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중앙양묘장을 떠나시기에 앞서 일군들에게 사회주의애국립운동을 벌리자고 호소하시었다.

그리고 사회주의애국립운동은 온 나라 인민들이 벌려야 할 대중운동이라고 하시었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

옥돌공예 《소나무와 학》



옥돌공예 《소나무와 학》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2013년 2월 한 재중동포가 삼가 드린 선물이다.

선물은 굳은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수수천년을 역세게 자라 서있는 소나무와 5마리의 학을 형상하였다.

소나무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속에서도 추호의 동요나 흔들림없이 사회주의 조국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그이의 령도따라 모진 광풍속에서도 굴함없이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역센 기상을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였다.

5마리의 학은 5대륙의 진보적인류가 주체로 찬연한 빛을 뿌리는 조선으로 찾아온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소나무에 벗겨진 머루, 다래냉쿨들은 우리 조국의 반만년 역사를 상징하고있다.



성파에서 더 큰 성과어로, 변혁에서 더 큰 변혁으로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는 우리 당과 인민이 지난 5년간에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총화하면서 성과에서 더 큰 성과어로, 변혁에서 더 큰 변혁으로 나아가는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전진기상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성과에서 더 큰 성과어로, 변혁에서 더 큰 변혁으로 나아가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는 우리 혁명특유의 고유한 전진방식, 전진기상이다.

이것은 역경과 시련을 승리와

기적으로 반전시켜온 우리 당과 인민의 지난 5년간의 행정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당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앞으로의 사업목표와 발전방향을 명백히 규제하고 그 해결을 위한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당시 환경은 매우 어려웠지만 우리 인민은 굳은 각오를 가지고 강력한 실천행동에 착수하여 정치와 경제, 국방, 문화, 외교를 비롯한 모든 방면에서 당결정을 성과적으로 리행함으로써 주체적힘을 비상이 제고시켰다.

특히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

획이 기본적으로 완수되고 주요공업부분들의 기술하부구조와 기능을 보강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어 경제의 적지 않은 분야가 계획적으로, 활력있게 전진할수 있게 하는 토대와 잠재력이 다져졌다.

뿐만아니라 지난 5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사람도 산천도 몰라보게 변모되고 수도와 지방, 도시와 농촌에서 변혁과 발전으로 들끓는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하여 나라의 면모가 달라지고 인민의 재부들이 늘어나며 그와 더불어 혁신과 도약의 충

계를 한단한단 밟아올라가는것이 오늘 거스를수 없는 우리 혁명의 흐름으로, 전진방식으로 되고있다.

조국의 운명에 자신의 운명을 련결시키고 국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감을 지니며 자기 사업의 높은 목표를 향해 분투하는 공민들의 애국충심은 전면적국가발전을 가속화해주고있다.

미증유의 투쟁기로 엮여진 지난 5년간을 즐기치게 떠밀어온 진정한 동력은 다름아닌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애국충심을 지닌 인민의 힘이였다.

공장과 농촌, 지하막장과 발전소건설장, 교단과 과학연구기지를 비롯하여 일터와 직업은 달랐어도 조선사람으로서의 자존심과 슬기, 힘과 열정을 바치며 조국의 부강번영에 성심

을 고여온것이 바로 우리 인민이였다.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사랑과 지혜의 땀방울, 백절불굴의 분투가 있어 사변과 변혁의 전성기가 펼쳐지고있으며 더욱 강대하고 아름다워질 우리 국가의 미래가 마중오고있다.

참으로 존재 그자체를 유지하기도 힘들었던 무수한 도전과 역경속에서도 오늘 우리 혁명이 성과에서 더 큰 성과어로, 변혁에서 더 큰 변혁으로 나아가는 전진과 약동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는것은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와 열렬한 애국심을 안고 분투하여온 인민의 강고한 투쟁에 기인된다.

성과에서 더 큰 성과어로, 변혁에서 더 큰 변혁으로 나아가는것은 다음으로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확고히 담보

하는 불패의 전진방식, 전진기상이다.

혁명의 전진과정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준과 목표를 내세우고 그것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수행해나가는 과정이다. 기성의것을 고집하고 답습하면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지 못하면 혁명이 정체될뿐 아니라 종당에는 좌절되고만다.

값비싼 성과와 경험이 루적되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커질수록, 우리식 사회주의가 즐기치게 전진할수록 목표를 더 높이 세우고 보다 강고한 의지와 줄기찬 분발력으로 전진과 력동의 새시대를 계속적인 확대에로 이어나갈 때 인민의 리상이 빛나게 실현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의 날이 앞당겨지게 된다.

오늘 이룩된 성과들을 전진과 발전의 도약대로 하여 새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가속화한다

-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순옥과 본사기자와의 대담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은 변혁단계에 힘차게 나아가는 것은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화성지구 5단계 건설착공식에서 지난 5년간의 사업을 총화하는 당대회를 앞두고도 잠시나마 실새없이 또다시 새로운 창조와 변혁에 출발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투쟁본태이고 열망이며 조선혁명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하시었다.

지금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경제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장성시킬 수 있는 발전토대를 구축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하여야 할 과업들이 나서고 있으며 이것은 순간의 담보나 정체도 허용하지 않고 더 적극적이며 완강한 투쟁을 벌려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새 전망계획기간은 새시대 지방발전정책, 농촌혁명강령을 비롯하여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기 위해 책정하고 시발을 뎨중장기적인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진척시켜야 할 중대한 시기이다.

우리 인민은 당 제9차대회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전면적발전기를 개척한 투쟁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한단계 더 높은 결실로 이어나가기 위하여 총분기해나섰다.

당중앙의 령도가 있고 애국충심을 지닌 인민이 있기에 성과에서 더 큰 성과에로, 변혁

에서 더 큰 변혁에로 나아가는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전진기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는 더 높은 발전단계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글 최남혁
사진 조선중앙통신

사계절산악관광지로 일선되어가는 삼자연시에 건설된 호텔들의 일부



붓나무호텔



밀영호텔



기자: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새 전망목표수행을 위한 전인민적진군이 가속화되고 있는 속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갈 인민의 애국열의도 날을 따라 격양되고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상원의 로동계급은 중산운동의 불길을 보다 세차게 일으켜 온 나라를 애국의 열정으로 끓게 하고 있습니다.

각지의 세멘트생산자들은 물론 기간공업부문과 중요생산단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전인민적인 애국운동의 격류에 합세해나섬으로써 경제전반에서는 상승추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립증하는 소중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날을 따라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자: 여성들의 애국열의도 비상히 승화되었다고 봅니다. 올해 3월에 발표된 자료를 보았는데 사회주의건설의 주요부문에 탄원한 여성들의 수가 5 000 여명이나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예.

각지의 여성들이 창조와 건설의 동음드높은 일터들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평양시의 평천구역, 동대원구역, 대동강구역, 강동군 등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공장, 기업소들로 탄원하였습니다.

평안남도에서도 여성들이 지방공업공장들로 진출하였습니다.

황해남도 용진군의 여성들은 농촌에, 탄광에 보탬을 주고 싶다고 하면서 많은 물자를 지원하였으며 누에치기를 비롯한 좋은 일을 찾아하고 공장, 기업소, 건설장소에서 경제선동활동도 활발히 벌리었습니다.

정말 여성들의 나이와 이름은 서로 달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것은 단 하나였으니 그것은 바로 애국으로 조국을 받들려는 지향이었습니다.

기자: 예. 저도 취재를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애국적소행들

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어느 한 지역이나 부문, 단위가 아니라 모든 지역,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진보와 발전을 이룩해야 하는 오늘 전체 인민의 애국심을 분발승화시키는 것보다 더 중대한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옳은 말입니다.

애국운동은 전체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된 애국의 열정을 분출시키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 창조적방법이며 집단적혁신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 혁명적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국운동을 벌리는 과정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공민적자각은 더욱 높아지고 단결과 협조는 한층 강화되며 그들의 창조적힘은 더 큰 사회적힘으로 전환되어 생산과 건설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국운동이야말로 우리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안아오는 위력한 원동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애국이라는 하나의 지향과 일념을 안고 투신력과 분발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갈 때 사회주의건설은 활력있게 진척될 것입니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합니다.

* * *

소베트나, 인민혁명정부냐?

(전호에서 계속)

인류가 소련을 등대로 바라보고 소베트를 모든 정권형태들 가운데서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우리가 아니었다. 소련과의 접경지대였고 또 신생소련의 영향을 이모저모 많이 받고있던 간도지방에서 소베트에 대한 환상이 사람들의 머리를 지배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남북만원정을 마치고 왕청에 돌아온 나는 소베트의 시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유격구도처에서 울려나오는 현실을 목격하고 아연해 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목소리들은 우리가 무심히 스치고 지나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거리들을 안고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그 두서없는 뒤소리들에 진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곧 간파하게 되었다.

나는 유격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인민들이 소베트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있는가에 대하여 더 깊이 료해하기 시작했다. 수십수백명의 인민들과의 부단한 접촉, 그들과의 진지하고도 허심탄회한 담화는 나로 하여금 소베트정권이 빚어놓은 좌경적시책의 후과를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유격구사람들이 소베트를 시답지 않게 보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즉시적인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는 극좌적인 구호 밑에 사유재산철폐를 선포하고 토지와 식량으로부터 낫, 호미, 걸이대와 같은 농쟁기에 이르기까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동산, 부동산들을 공동소유로 만들어 버린 때부터였다. 소베트정부는 재산의 공유화를 일사천리로 강행한 다음 유격구안의 모든 주민

들이 남녀로소를 막론하고 공동생활, 공동로동, 공동분배의 새로운 질서 밑에서 움직이도록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소베트급진론자들이 넘불처럼 외우고다니던 《아르젤리》생활이라는 것이었다.

유치원생이 소학, 중학, 고등학교도 거치지 않고 대학으로 직행한셈이었다.

소베트정부는 또한 큰 지주, 작은 지주, 친일 지주, 반일지주를 가리지 않고 유격구역안에 있는 모든 지주들과 부농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였으며 마소와 량식까지도 일률적으로 수탈하였다.

동만땅이 소위 《적색구역》과 《백색구역》으로 분리된 후 적구로 내려가지 않고 유격구역에 남은 지주들은 대체로 반일감정이 강한 애국적인 지주들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이 왕청골안에서 무장대오를 꾸릴 때 그들은 유격대에 대한 후원도 잘하였다.

그런 지주들 가운데 장시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진보적인 중국인지주도 있었다. 1932년 봄의 대《토벌》때 간도림시파견대는 그의 집 쌀창고까지 불태워버리었다. 《토벌대》가 총대를 휘두르며 강제철거령을 내리였지만 장시명은 그때 대두천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남아있었다. 일본사람들에 대한 장시주의 원한은 그 봄부터 더 깊어졌다. 그는 지주였지만 유격구사람들의 생활을 물심량면으로 잘 도와주었다.

《유격구어른들, 나는 왜놈들의 꼴이 보기 싫어서 이 골안에 그냥 남은 사람이웨다. 저 악귀같은 놈들을 대두천 시내에서만이라도 좀 몰아내주시우다!》

유격대원들이 모연공작을 가면 장시명은 이런

부락을 하였다.

유격구인민들은 그 지주와 아주 사이 좋게 지냈다.

그런데 소베트정권은 이 지주마저 적구로 쫓아 버리었다. 장시명이 유격구역에서 내려가지 않게 사정을 봐달라고 애걸하였지만 소베트는 그 요구를 외면해버리었다.

《소베트정권은 지주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게 되었다. 당신이 반일정신이 강한 사람이고 지난날 유격구사업을 잘 도와준 것은 사실이지만 착취 계급에 속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숙청하지 않을 래야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이 고장에서 속히 떠나라.》

이것이 반일지주에게 내린 소베트의 선고였다.

혁명을 성심성의로 원호하던 장시명의 재산은 즉석에서 수탈되어 소베트정부가 관할하는 창고로 모조리 들어갔다. 알몸이 된 장시주는 눈물을 흘리며 일본군이 주둔하고있는 대두천으로 내려갔다.

그 당시 숙청사업에 동원된 사람들은 지주들의 장래속에 있는 아이들의 꽃신까지도 다 털어 갔다. 중국사람들한테는 집에 너자애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커서 시집간 다음 낱을 어린애에게 신길 신발까지 미리 다 만들어두는 재미나는 풍습이 있었다. 그런 신발을 꽃신이라고 하였다. 돌전 애기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한살, 두살 올라가면서 문수가 다른 꽃신들을 연방 만들어 장래속에 간수해두곤 하였는데 그런 신발가운데는 골무만치 작은 것도 있었다.

이런 신들까지 다 수탈해갔으니 그것을 묵묵히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지주들이 유격구를 떠나면서

무슨 생각인들 안하였겠는가.

소왕청골안에는 유산자들한테서 몰수한 마소가 우글우글하였다. 어지간한 목장을 꾸리고도 남을만한 량이어서 근거리의 청년들은 누구나 다 말을 타고 다니었다. 소베트의 치하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멋이라면 멋이었다.

좌경분자들은 중국녀자들이 전족을 하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것까지 투쟁대상으로 삼았다.

1930년대전반기는 동만지방에서 좌경의 전성기였고 좌경의 전횡속에서 신성한 혁명적원칙들이 시련을 겪고있던 시기였다. 어떻게 되어 좌경바람이 이처럼 동만땅을 휩쓸 수 있었던가. 간도의 유격구역에 모여있던 혁명가들이 모두 망종이었거나 리성을 잃은 미친 사람들이었던 말인가.

아니다. 유격구를 다스리던 절대다수의 공산주의자들은 숭고한 혁명적리상과 따뜻한 의리를 지닌 훌륭한 인간들이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인간을 뜨겁게 사랑하며 정의로운것을 열렬히 지향했다. 그런데 이처럼 인정에 무르고 분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좌경로신의 제창자, 집행자가 되어 돌이킬수 없는 실책을 범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 원인을 로선에서 찾았고 그 로선을 작성한 사람들의 사상적미숙성에서 찾았다. 실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꼭대기에 앉아서 고전의 일반적원칙과 선행자들의 경험을 통채로 직수입한 현실성이 없는 지령들을 마구 만들어 내려보내다나니 실천상에서도 우리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호에 계속)

흥분과 걱정 속에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에 즈음하여 조국을 방문한 재중조선인청년협회축하단

지난 4월말부터 5월초까지 김송미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청년협회축하단이 조국을 방문하였다.

축하단성원들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고 대성산혁명렬사릉, 신미리에국렬사릉, 조선혁명박물관,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청년운동

사적관, 평양종합병원, 강동군병원, 화성거리, 전위거리 등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여 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돌아보면서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기념 청소년학생들의 야회 및 해불행진에 초대된 재중조선인청년협회축하단 성원들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였다.



고귀한 생애를 더듬어보았으며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신미리에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려사들의 정신세계를 알아보기도 하였다.

그들은 현대적인 지방병원으로 제일먼저 일떠선 강동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인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금치 못했고 영화관과 도서관, 상업망들과 편의시설 등이 있는 강동군 종합봉사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특히 도서관에 있는 증강현실수족관에서 조수영동포가 2차원으로 물고기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영동하게 《회장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물고기가 3차원으로 현시되어 유유히 헤엄치게 되자 저저마다 탄성을 올렸다. 조수영동포는 이 물고기가 강동군인민들의 행복상에 반해서 아마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였다.



대성산혁명렬사릉에서



신미리에국렬사릉을 찾았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았다.



청년운동사적관에서

수족관을 떠나지 못할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김송미 회장을 비롯한 축하단성원들은 《회장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들은 상점에 들러 강동군식료공장에서 생산한 식료품들의 맛도 보았다.
 보건현대화의 모체기지로 일떠선 평양종합병원에서 리봄순부회장은 많은 병원들을 다녀봤지만 이처럼 훌륭하게 꾸러진 병원은 본적이 없다고 하면서 정말이지 인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인민사랑이 곳곳마다 스며여있어 선뜻 떠날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축하단성원들은 조국의 청년들이 일떠세운 전위거리도 돌아보았다. 김영미, 김명옥, 오숙경, 량리향, 김혜경, 김수련, 양원동포들은 하나하나의 건축물들을 돌아보면서 향유의 권리보다 보답의 의무를 먼저 앞세우고 조국의 부름에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화답해나선 조국청년들의 애국의 마음을 읽기도 하였다.

축하단성원들은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



강동군종합봉사소에서



대회 기념행사들에도 참가하여 조국은 무엇으로 강대하고 어떤 힘으로 전진비약하며 조국의 래일은 또 얼마나 밝고 양양한가를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모범적인 청년들과의 상봉모임을 통하여 자신보다 사회와 집단을 먼저 위하는 청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에 큰 감동을 받았다.

김송미회장은 《조국을 위해 너무도 한 일이 없는 우리들을 조선청년들의 대회합,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 기념행사들에 불러

주시여 우리들의 삶에 충성과 애국의 자양을 주시고 힘과 열정을 배가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큰절을 삼가 올리고싶습니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조국방문의 하루하루는 그들의 마음속에 세찬 흥분과 걱정의 여운을 남긴 뜻깊은 나날이었다.

글 엄향심
 사진 김영호



평양종합병원과 강동군병원을 돌아보았다.



모범적인 청년들과의 상봉모임에 참가한 재중조선인청년협회축하단 성원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것은



은정대 홍목재가공공장 지배인 한성민

은정대 홍목재가공공장은 국내의 목재가공분야에서 손꼽히는 단위들중의 하나이다.

공장은 최근년간 삼지연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호텔들과 화성지구의 여러 봉사망들의 내부장식과 목재가공을 맡아 진행하면서 자기의 얼굴을 더욱 뚜렷이 하였다.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는 목재가공분야에 한생을 바쳐가고있는 한성민지배인의 성실한 노력이 깃들어있다.

1986년에 어느한 목재가공 종합공장 기술공정원으로 일하던 그는 평성에 가구분공장을 내올데 대한 과업이 제기되자 그것을 스스로 맡아나섰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그것도 적은 로력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 일은 그에게

아름찬 과제가 아닐수 없었다. 그렇다고 조건이 좋아질 때까지 앉아 기다릴수도 없었다.

《어려운 일에 팬히 나선다고 일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때 나에게 정신적힘이 되어준것이 바로 아버지가 넘겨준 한쪽의 붉은기였습니다.》라고 성민은 그때를 회상하며 말하였다.

일본에서 태어난 한성민은 어릴적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랐다.

그의 아버지 한학수는 조국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교육일군으로 일하였다.

그가 아버지에게 대하여 회고할 때면 어머니가 들려준 하나의 이야기를 늘 첫머리에 떠올리곤 한다.

1952년 당시 오사카 나카니시소학교의 교장이었던 아버지는 미제가 조선전쟁을 일으켰던 6월 25일에 학교 개교식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다. 아버지는 교사정면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청사지붕에는 공화국기발을 높이 게양하게 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개교식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당시 조선학교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탄압이 심화되던 때에 진행된 류다른 개교식은 오사카의 116개의 조선학교들에서 다시 학교의 문을 열기 위한 투쟁의

봉화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심과 애국으로 일관된 아버지의 교육활동은 그의 성장에 커다란 자양분이 되었다.

자녀교양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있던 아버지는 1964년 10월에 12살 난 그를 조국으로 떠나보내었다.

그날 아버지는 가슴에 늘 품고다니던 붉은기를 아들의 자그마한 손에 쥐여주며 언제나 이 붉은기를 힘있게 날리면서 조국을 빛내여가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성민은 혁명가유자녀들과 함께 해주혁명학원(당시)에서 배움의 나라를 펼쳤으며 학원에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두차례나 만나뵙고 기념사진을



귀국을 앞두고(1964년)

찍는 영광을 지니었다. 동포자녀들에 대한 조국의 사랑이 더해만질수록 성민은 아버지의 당부가 어린 붉은기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언제나 변함없이 애국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의 당부가 바로 그 붉은기에 다 담겨져있었다.

후날 조국의 품에 안긴 아버지는 조선로동당원으로, 사로청(당시)일군으로 성장한 아들을 보며 《우리 수령님께서 너를 키워주셨구나.》라고 말하면서 눈굽을 적시였다고 한다.

붉은기는 성민에게 있어 모든 난관을 이겨나가게 한 힘의 원천이었다.

그는 3년만에 18명의 인원으로 자그마한 직장을 꾸려놓았으며 그로부터 9년후에는 그존한 생산토대를 갖춘 현대화된 새 공장을 일떠세웠다.

그리고 하나의 제품을 생산해



기술자들과 협의회를 진행하고있는 한성민

도 높은 수준에서 손색없이 만들어내기 위해 자신부터 꾸준히 탐구하고 사색해나갔다.

그는 종업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유능한 기사들로 키웠으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제품의 질을 부단히 체고해나갔다.

이 나날에 공장의 종업원들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인기있는 새 제품들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해내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공장의 생산능력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업종도 늘어나갔다. 가구의 품종과 가지수를 늘였을 뿐 아니라 건축물의 내부장식에 필요한 다양한 건축품들도 생산하였다.

해마다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국가에 많은 리득을 준 공장은 이름있는 기업으로 장성하였으며 지배인 한성민은 사회주의애국공로자의 영예를 지니었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든 말은 사업에 헌신하고있는 그를 나라에서는 조선로동당창건 80돐 경축행사를 비롯하여 중요국가 행사들에 대표로 불러주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한쪽의 붉은기는 오늘 성민의 가정의 유일한 유산으로 되어 그의 자식들을 대를 이어 애국의 길로 떠밀어주고있다.



막내딸 한송이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재가공분야에서 사업하고있다.

글 김성경
사진 김강무

창창하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차상보

영광스럽게도 나는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가 진행되는 뜻깊은 시기에 조국을 방문하였다.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집권당의 대회는 자못 그 의의가 크다.

특별히 지적하고싶은것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당대회에서도 경제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한 사실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5년간 조국에서는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섰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도 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다.

우리 동포들은 조국을 방문하면서 그 변혁상을 폐부로 절감하였다.

그런데 당대회에서 또다시 인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기 위해 책정하고 시발을 땀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토의되었다.

정말 조국인민들은 복받은 인민들이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할것이다.

산천도 그 산천이건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국장 김연주

조국방문길에 오를 때면 우리 동포들이 한결같이 입에 올리는 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놀랍다는 말이다.

놀랍다. 정말 나도 놀랍다.

지역도 그 지역, 산천도 그 산천이건만 조국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변모되었다.

나의 고향인 강원도 원산시만 놓고보아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그림같이 펼쳐져 어제날의 옛 모습을 찾아볼길 없다. 내 고향뿐이 아니다. 많은 동포들의 고향들도 변모되었다.

성천군과 채령군에도 가보았는데 그곳에는 자기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방공업 공장들이 일떠서 군내인민들이 그 덕을 톡톡히 보고있었다. 제품들도 도시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못지 않았다.

아무리 발전된 나라라 할지라도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는 상례이다.

허나 조국에서는 농촌이 도시화되어 가고있다.

이런 놀라운 현실은 인민을 위한 일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민헌신에 의하여 이룩되고있다.

인민의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계시기에 조국은 더 멋있게 변모될것이다.

고향소식

깊어지는 고향, 강동군을 찾아서

나날이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을 동포들에게 전하기 위해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의 발걸음은 평양시 강동군으로 향하였다.

단군릉이 있는 곳으로 하여 널리 알려진 강동군이 오늘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에 의하여 일신한 모습을 독자들에게 전하고싶어서였다.



사람들이 즐겨 찾는 종합봉사소

강동군에서 우리의 시야에 제일먼저 안겨든것은 강동군종합봉사소였다.

멀리에서도 대뜸 알아볼수 있게 활달한 글씨체로 큼직하게 나붙은 《강동군종합봉사소》라는 간판도 멋있었지만 봉사소에서 다양한 봉사를 받을수 있다는 군주민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였다.

종합봉사소에는 종합상점, 전자제품상점, 어린이놀이장, 물놀이장, 정보기술보급실, 도서관, 영화관, 당구장, 식당 등 여러 봉사시설들이 있었다.

부원 림유경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봉사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청량음료점에서 이름난 대동강맥주를 마시는 남성들과 종합상점에서 마음에 드는 가정용품들을 고르느라 시간가는줄 모르는 녀인들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흥그롭게 해주었다.

우리는 양복점에서 하리로동자구의 한 어머니가 새집에 들어오는 며느리에게 줄 옷들을 고르며 원심을 쓰는 모습을 보고 《이 옷이 어땡 습니까?》 하고 그에게 한마디 건네이기도 하였다.

우리가 골라준 옷을 보던 어머니는 색도 그렇고 옷형태도 보기 좋다며 이제 며느리가 이 옷을 입고 나시면 더 고와보일거라며 무척 기뻐하는것이였다.

기재운동실에서는 남녀로소가 여러가지 운동기재들을 리용하고있었고 사진판에서는 청춘 남녀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다.

봉사소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군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되어가고있음을 느낄수 있었다.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 강동군병원

조선로동당의 지방발전정책에 따라 이곳에 현대적인 병원이 새로 일떠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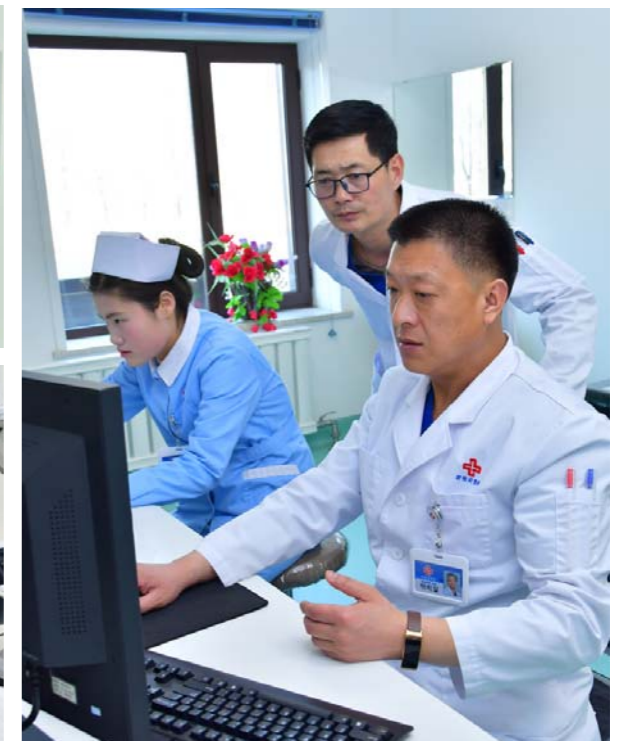
우리는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게 건설된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었다.

병원에는 먼거리의료봉사실, 집중치료실, 수술실, 입원실, CT검사실 등 여러 실들과 외과, 내과를 비롯한 전문과들이 있었다.

기술부원장 최건일은 우리에게 국가에서 의료설비들을 일식으로 갖추어주고 조선적십자종합

병원을 비롯한 중앙의 여러 병원의사들이 의료상방조를 주어 이제는 병원의사들이 큰 수술도 얼마든지 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병원이 개원하여 현재까지 많은 환자들이 여러 전문과적치료를 받았다고 하였다.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온 림경로동자구의 한 녀인은 우리에게 이런 훌륭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보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강동종합온실농장과 지방공업공장들

병원을 나선 우리일행은 군일군과 함께 강동 종합온실농장과 강동군 지방공업공장들로 향하였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강동종합온실농장 경리 홍성호는 먼저 수경온실과 토양온실로 안내하였다.

온실들에서는 배추와 부루, 고추, 오이, 진채 등 갖가지 남새들이 푸르싱싱히 자라고있었다.

온실농장의 종업원들은 수도시민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남새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영양 강화제에 의한 비배관리에 힘을 넣는 한편 상자식 남새재배방법으로 온실공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작물의 특성에 따르는 겹재배방법을 도입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늘어나가고있었다. 이제 저 수확물들이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흐뭇해짐을 금할수 없었다.

군일군은 식료공장에 들러 생산된 제품들을 맛보면 또 다른 새맛을 느끼게 될것이라며 우리를 새로 일떠선 지방공업공장들로 이끌었다.

식료공장에서는 과자, 사탕, 빵, 대추술, 도토리술 등 10여종에 100여가지의 제품들과 강동군구빈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염소젖으로 여러가지 젓가공품들을 생산하고있었다. 인민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여 이롭있는 식료공장들의 제품들과 당당히 겨루어보겠다는



강동종합온실농장



강동군식료공장



종업원들의 열의는 대단하였다.

옷공장, 일용품공장에서 만든 색깔이나 형태, 무늬가 다양한 옷제품들과 가구, 건구제품들도 중앙제품에 못지 않았다.

군의 일군은 국가에서 이런 훌륭한 경제적조건들을 마련해주니 우리 생활이 보다 더 윤택해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나날이 젊어만지는 우리 고장에 또 어떤 전변이 일어나겠는지 생각만 해도 가슴뿌듯해짐을 금할수 없다고 하였다.

우리는 강동군인민들의 기쁨넘친 모습에서 더욱 변모될 조국의 앞날을 그려보며 이곳을 떠났다.

글 윤혁, 사진 김영호



강동군일용품공장에서 만든 가구들의 일부



강동군옷공장

은산 종이 공장

지난해 12월에 준공된 평안남도의 은산종이공장에서 필기용 종이, 포장용 종이, 위생용 종이를 비롯한 각이한 종이제품들이 다량생산되고있다.

은산종이공장은 여러종의 나무들과 지방의 혼한 원료들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수 있는 제지기술이 도입된 경제적효과성과 실리가 큰 공장이다.

종이생산공정은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이 현대화되어 있다.

공장에서는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설비관리, 로력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있으며 원료배합비율을 정확히 보장하고 다용도초지기의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고있다.

지배인 김철민은 《우리는 최신과학기술자료보급체계를 정상운영하면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끌어올리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고있다. 또한 기술학습, 경험발표회 등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종업원들이 설비들에 정통하고 높은 기술기능을 소유하도록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공장에서는 또한 뽕뿌라나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밀짚과 가랑잎 등을 리용하여 나무모용기와 닭알꽃개를 비롯한 종이성형품을 생산하고있다.

국가과학원의 연구집단은 새로운 생산공정확립에서 큰 몫을 맡아 수행하였다.

연구사들은 팔프생산공정에 화학적방법과 기계적방법을 결

합한 제지기술을 개발도입하여 원료에 관계없이 질높은 종이를 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은산군에 지방원료에 의거한 종합적인 종이생산기지가 꾸려짐으로써 다른 도들에서도 종이공장을 자체로 건설할수 있는 본보기적인 경험이 마련되었다.

글 채향옥
사진 라평렬



생산장성의 비결

- 교육도서인쇄공장에서 -

당 제9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에 펼쳐 나신 교육도서인쇄공장의 종업원들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림경주지배인은 《교과서와 참고도서들은 학생들의 교육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본수단의 하나입니다. 공장은 질높은 교과서와 참고도서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습니다. 결과 전반적생산 공정들의 기술개건과 설비들의 능력제고에서 뚜렷한 진전이 이룩되고있습니다.》 하며 우리를 공장으로 안내하였다.

교과서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제책직장에서 기술혁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생산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직장에서는 공장의 기술자들과 함께 적책기의

조종장치를 새롭게 제작설치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건의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함으로써 제책 종합흐름선의 성능을 크게 개선하였다.

인쇄직장의 기술자들과 기능공들도 판종이 량면4색인쇄기의 조종프로그램과 통구리종이 량면4색인쇄기의 인쇄부동신검사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작성하여 인쇄의 질과 생산성을 보다 높일수 있게 하였다.

한편 인쇄기술연구소의 연구사들은 교과서 원고와 편성원고의 대조검토에서 신속정확성을 보장할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도입하여 기술준비공정의 정보화수준을 높였다. 이외에도 생산단위들에서 설비들의 운영과정에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해주어 설비가동률을 높일수 있게 하고있다.



기술혁신사업이 대중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진행되는 속에 현재 공장의 생산능력은 계속 갱신되고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반제품직장, 공무직장 등에서도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계발시켜 중요설비들의 부분품을 새롭게 개조함으로써 설비보수와 정비에 드는 많은 로력과 시간을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기술혁신사업이 대중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진행되는 속에 현재 공장의 생산능력은 계속 갱신되고있다.

글 김지성
사진 리영철





보통강구역 경흥유치원의 어린이들은 지난 기간에 진행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경연과 전국아동음악방송예술무대에서 자기들의 재능을 펼쳐보이었다.

이러한 성과속에는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교양의 전 과정을 지능계발과정으로 전환시킨 이곳 유치원일군들과 교양원들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원장 황초향을 비롯한 일군들

과 교양원들은 어린이들의 천성과 소질을 찾아내어 재능을 키워주며 지적능력을 계발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탐구도입하는데 힘을 넣었다.

유치원교육강령에 제시된 과 정안들을 실속있게 집행하는것과 함께 과외교육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재능의 싹을 발견해내고 지적능력을 계발시켜줄 목표를 세운 이들은 그를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내밀었다.

원장부러가 어린이지능교육 발전추세와 현 실태를 깊이 연구하면서 모든 교양원들이 높은 실력을 갖추도록 요구성을 높이었다. 매주 진행되는 자질판정의 날과 분과의 날을 통해 모르는것은 배우고 앞선 교수방법과 경험들을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교양원들의 실무적 자질과 능력을 부단히 높여나가

도록 하였다.

한편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편물들도 창안하여 교육교양의 실효를 제고하였다.

이들의 노력에 의해 바둑, 만들기, 로보트, 피아노, 바이올린 등을 잘하는 나 어린 재간둥이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남달리 기억술이 높은 신강은어린이, 피아노를 능란하게 치는 최서현어린이, 바이올린연주를 잘하는 박세웅어린이, 바둑신동으로 불리우는 오윤성어린이를 비롯하여 유치원에는 재간둥이들이 많다.

오늘도 이곳 유치원의 일군들과 교양원들은 학령전어린이 교육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자각하고 지능계발교육을 개선강화해나가는데 자신들의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글 변진혁
사진 김강무



지능계발교육을 잘하는 유치원

- 보통강구역 경흥유치원에서 -



축복받은 학생소년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1월 1일 2026년 설맞이공연 《제일 좋은 내 나라》에 출연한 학생소년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사랑의 기념 사진을 찍으시었다.

그들속에는 지덕체자랑을 안고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께 새해 축원의 인사를 올리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학생소년들도 있다.

글 김성경, 사진 리철



황담의

비행사가문의 소녀

평양외국어대학 평양외국어학원 고급3학년 황담의학생은 비행사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때부터 아버지와 삼촌 그리고 그의 오빠들이 3대를 이어가며 비행사로 복무하고있다.

비행사가문의 가풍은 외국어학원에서 공부하고있는 어린담의의 가슴속에 자기 집에 대한 남다른 긍지를 간직하게

하였다.

하기에 그는 지난해 3월 로씨야에서 진행된 제7차 국제공연 《자기 조국에 대하여 세계에 이야기하라》에 참가하여 자기 집의 이야기를 담은 동영상편집물 《우리 집 이야기》를 훌륭히 창작하여 내놓을수 있었다.

담의자신이 직접 로어로 해설하여 제작한 편집물은 90s라는 짧은 시간동안에 비행사가정인 자기 집 이야기를 소담하면서도 방불하게 펼쳐보임으로써 가정의 가풍, 애국의 전통을 곳곳이 이어나가는 것이 새세대인 자신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내용을 잘 보여주었다.

세계 50여개 나라의 수만명의 학생, 어린이들이 참가한 이 공연에서 담의는 편집물제작을 통하여 문학과 역사, 외국어, 컴퓨터 등 다방면적인 지식과 높은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었다.

편집물은 인터넷에 실려자마자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

였으며 공연에서 1등으로 평가되었다.

로씨야의 한 인사는 16살의 어린 소녀의 말이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감정이 정말 잘 느껴졌다, 그의 말을 로씨야 아이들과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들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외국인은 로어로 류창하게 말하는 이 학생의 모습에서 조선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보았고 조국보위정신의 계승을 보았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우승컵과 상장을 수여받은 후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담의는 《오늘의 이 기쁨을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께 먼저 드리고싶다.》라고 말하여 장내를 또 한번 감동시켰다.

담의가 우승의 시상대에서 품었던 소원은 뜻밖에도 새해아침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새해 축원의 인사를 올리는 담의를 만나주신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께서는 정말 용타고 두볼을 다독여주시며 그의 앞날을 축복해주시었다.

바이올린신동

축복받은 학생소년들속에는 바이올린신동도 있다.

그가 바로 설맞이 공연에서 바이올린 중주와 합창 《김정은원수님은 우리 아버지》에 바이올린수로 출연한 금성제1중학교 소학반 학생인 한여진이다.

유치원때부터 음악에 남다른 취미와 소질을 가지고있던 여진은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자기의 예술적재능을 마음껏 자랑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교육을 받으면서부터 여진이는 같은 또래의 어린이들에 비해

뛰어난 연주솜씨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는 2024년 설맞이공연때 바이올린5중주에 출연하였으며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었다.

그후 여진이는 2024년에 진행된 제59차 전국학생소년 예술축전(소학반)에 참가하여 1등을 하였으며 지난해 5월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 예술단에 망라되어 로씨야의 연해변강을 방문할 때에는 바이올린3중주에 출연하여 절찬을 받았다.

어린 나이에 바이올린이라는 양악기를 가지고 민요들을



한여진

운치나게 형상해내는 그의 독특한 연주기법은 전문가들의 감탄을 자아내고있다.

언제나 1번수로

지덕체의 남다른 자량은 평양제1중학교 고급1학년 학생인 승대해학생에게도 있다.

그는 지난해에 진행된 전국제1중학교 학생들의 외국어회화공연에서 특등을 한 자랑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었다.

평시에 공부를 잘하여 학년의 1번수로 꼽히는 그는 특별히 외국어실력이 뛰어나다. 발음이 정확하고 회화가 류창하며 기억력이 남달리 좋아 외국어공연들에서 항상 우

승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있다.

그는 꿈결에도 뵙고싶은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을 만나뵙은 소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학생의 응당한 본분인 학습을 잘한것밖에 없는데 아버지원수님의 따뜻한 축복을 받아안았으니 이 세상 나처럼 행복한 학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해는 오늘도 그날의 영광을 가슴에 안고 열심히 학습하여 1번수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가고있다.



승대해

이외에도 가야금신동으로 소문난 박의주학생을 비롯한 뛰어난 예술적재능을 지닌 학생들, 제23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청년부류와 소년부류에 참가하여 우승한 한소연, 김행복학생들도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었다.



누구나 노력하면 이룰수 있다

- 평양컴퓨터기술대학에서 -



지난해 10월 평양컴퓨터기술대학 인공지능기술 학부 3학년 1반의 15명 학급전원이 대학생과학 탐구상을 수여받았다.

2개이상의 다국어소유와 전공분야의 높은 실력, 가치있는 연구성과, 여러 경연들에서 우수한 전적 등은 이들모두가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대학생과학탐구상을 쟁취하는 과정에 거둔 성과이다.

그 기간에 이들이 개발한 인공지능기술을 리용한 초단기일기예보체계와 통합교수관리체계, 과학기술행정 관리지원체계, 고려치료지원체계를 비롯한 10여건의 정보기술제품들은 전국대학생 정보과학기술성 과전시회에서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제품들로 높이 평가 되었다.

김광성학생이 개발한 초단기일기예보체계는

초단기예보에 리용되는 기상상태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세밀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큰물을 비롯한 자연재해위기에 신속히 대응할수 있는 과학기술 적담보를 마련하였다.

또한 김선일, 박강위학생들이 개발한 통합 교수관리체계는 완전학점제 교수관리체계로서 현재 여러 대학들에 도입되었다.

인공지능기술, 대자료처리기술 등을 리용하여 종합된 정보에 대한 분석과 평가, 예측, 결심채택, 조종을 실현함으로써 교수관리의 과학성과 효율성을 보장해주는 이 체계는 교원, 학생들의 교수 및 학습효과를 제고해주는데서 큰 은을 내고있다.

이외에도 고려치료지원체계와 인민대학습당 지능도서관정보체계, 국가교육관리정보체계를 비롯하여 학급학생들이 개발한 여러건의 정보

체계들은 실용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높이 평가 되었다.

평양컴퓨터기술대학 컴퓨터학원을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이들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지향이 있다.

그것은 대학기간에 나라의 부강발전에 이바지 하는 기술인재로 준비하는것이다.

이들은 서로의 지혜를 합치면서 1학년때에는 엄두도 낼수 없었던 전공과목과 외국어과목에서 높은 실력을 쌓았으며 과학연구조에도 망라 되었다.

오전에는 강의를 받고 오후에는 연구사업을 하느라 힘겨웠지만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담임교원이며 학부장인 김광진과 지도교원들은 연구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며 학생들에 대한 지도에 힘을 들이였다.

이 나날에 학생들은 심층학습기술과 대자료 기술, 구름연산기술, 기상학, 교육정보학, 도서관학 등 여러 기술들과 학문들을 익히면서 과학연구 방법들을 하나하나 터득해나갔다.

학생들은 연구사업뿐 아니라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적인 경연들과 전시회들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들의 실력을 더욱 높여나갔다.

2024년에 진행된 전국공업부문 대학들의 수학 학과경연에서 특등한 김광성학생의 실력은 학급의 본보기로 되었으며 모든 학생들이 야심 만만한 배심으로 프로그램작성도전경연 《개척자-2025》와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25를 비롯한 경연, 전람회들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 었다.

《결코 어려운것, 신비한것이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누구나 자기가 바라는것 을 이룰수 있다는것이 우리가 이번에 얻은 경험 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할것입니다.》

학급의 어느 학생에게서나 들을수 있는 이 말속에서 청년대학생들의 지칠줄 모르는 정열과 진취적인 탐구정신을 엿볼수 있었다.

글 김성경
사진 리영철



인기를 끄는 화초공예품들



- 중앙식물원 식물정보교류소 사계절화초공예제작소에서 -

《작품을 볼수록 자연의 세계에 빠져드는것을 어쩔수 없다. 금시라도 그림속의 숲속길로 걸어가고싶은 심정이다.》

《푸르싱싱함이 그대로 살아있는듯한 소나무와 봄의 따듯한 정서가 안겨오는 호수가의 풍경 등 작품들에 반영된 세부형상들은 그 하나하나가 생동하고 립체감이 나머지 살아있는 식물을 감상하는 느낌이다. 말린꽃의 매력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이것은 인민경제 부문별 과학기술성과전시회-2025에 전시되었던 화초공예품들을 본 참관자들의 소감이다.

자연의 정취가 한껏 느껴지는 화초공예품들은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공예품들은 중앙식물원 식물정보교류소 사계절 화초공예 제작소의 제작자들이 창작한것이다.



제작소의 책임자 홍련숙은 선과 색채 등을 수단으로 하고있는 조선화나 유화와는 달리 화초공예는 말린 식물 재료를 기본수단으로 하기때문에 재료의 질이 곧 제품의 질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10여년전 이곳 제작자들은 세계적인 화초공예제작추세와 기술을 파악하고 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우리 나라에 흔한 식물들을 재료로 공예품을 만들수 있는 건조기술을 확립하였다. 이 기술은 식물재료들을 특수가공처리하여 자연의 실체와 똑같은 유연성과 형태, 질감을 유지하며 오랜 시간이 흘러도 탈색되지 않게 한다.

2024년에 이들은 국내특허기술인 식물재료를 리용한 새로운 공예제작기술방법을 내놓았다.

이에 토대하여 이곳 제작소에서는 회화적 및 공예적 표현수법을 리용하여 정물화, 풍경화, 장식공예품 등 화초공예품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데 힘을 넣었다.

예로부터 건강과 장수의 의미를 담고있는 향나무로 버섯, 다람쥐, 곰 등의 모양을 동심에 맞게 형상한 장식공예품들은 주로 어린이들이 좋아한다고 한다.

또한 《식물원의 가을》, 《호수가의 정서》, 《새벽길》, 《오곡》, 《꽃정물》을 비롯한 액틀형공예품들은 건강과 장수, 가정의 행복 등 인간생활의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것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일기념품으로 즐겨 찾고있다.

이곳 창작가들은 작품이 훌륭히 형상되자면 주제와 대상에 맞는 식물재료들을 옹게 선택하는것과 함께 그것을 예술적화폭으로 생동하게 구현하는 높은 묘사능력을 소유하는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선화와 유화 등 미술을 전공한 이들은 새로운 양상의 작품창작에서 개성적인 예술적기량들을 발휘해나가고 있다.

이들이 창작한 화초공예 《식물원의 가을》은 화초축전-2025에서 기술상을 받았으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진행된 미술기념품전시회에서 많은 화초공예품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글 강소현, 사진 김영호



발명가는 타고난 사람이 아니다

《발명가는 타고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아래의 발명가들을 취재하는 과정에 다시금 음미해보게 되었다.

글 김지성
사진 리석



65살의 발명가

평양시 만경대구역 만경대동 97인민반에서 사는 65살 난 윤희녀성은 년로보장을 받은 때로부터 근 10년동안에 120여건의 창의고안을 하였다.

평양시과학기술위원회 일군들은 《〈이런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것은 어떨것 같은가?〉고 매일이다싶이 묻곤

하는데 그런 열정이 어디서 샘 솟는지 놀라기만하다.》라고 감탄을 금치 못해한다.

하다면 윤희녀성이 어떻게 되어 많은 창의고안을 할수 있었는지...

어느한 진료소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풍부한 림상경험과 정성으로 담당주민들의 존경을 받아온 윤희녀성은 년로보장을 받은 후에도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내놓기 위해 애썼다.

그는 국내의 천연자원에 기초한 건강식품개발에 달라붙었다.

모르는것이 많았고 육체적부담도 적지 않았지만 그의 연구는 하루도 중단된적이 없었다. 이런 그를 남편도 적극 도와나섰다. 이렇게 되어 개발된것이 단백곤충을 리용한 살구씨울 무단백영양다식, 검은콩사탕, 종합단백영양즙을 비롯한 건강식품들이다.

윤희녀성이 개발한 제품들은 인체에 필요한 영양성분들이 풍부히 들어있고 흡수력도 높은 것으로 하여 나오자마자 인기를 끌었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새로운 착상이 샘솟듯 쏟아져나왔다.

첫 창의고안의 실현에서 신심을 얻은 그는 인체에 좋은 먼적외선과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전기석과 무독, 무해화기능이 강한 전자기파차폐체, 복방약초간접뜸치료기 등 수많은 치료기구들을 런이어 내놓았다.

그가 창안한 제품들은 여러 전람회, 전시회들과 과학기술 부문 축전, 발표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조국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수만 있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는 인생관을 안고 윤희녀성은 생활의 자그마한 단면도 탐구적으로 대하면서 사색과 헌신의 길을 오늘도 계속 이어가고있다.



로동자발명가

오늘 인쇄기계분야에서 고무로라를 쓰는것이 보편화되고있다. 그러나 고무로라의 결함은 오래동안 쓰는 과정에 마모되어 인쇄질이 떨어지는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한 발명가가 있다. 그가 바로 평양종합인쇄공장 로동자 위인철이다.

20여년간 공장에서 일해오는 과정에 로라의 마모로 인쇄

의 질이 떨어지는것을 목격한 그는 이것을 자신이 해결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그는 《걱정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로라로 하여 생산이 자주 중단되고 인쇄의 질이 떨어지는것을 생산의 주인으로서 그저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연구에 달라붙었다. 결과 수봉고무로라에 의한 인쇄방법을 완성하여 생산의 질을 높이고 기계의 수명도 늘이었다.》라고 말하였다.

대단한 정열가, 이것이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로라기계를 처음 말았을 때 인철은 기술기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과학기술학습에 참가하면 허심하게 배웠고 짬만 있으면 고급기능공들을 따라다니며 기술전습을 받았다. 이 과정

에 그의 기술기능은 나날이 높아졌고 무엇이든지 노력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스쳐보내지 않고 항상 탐구하고 모색하는 열정은 그를 고급기능공으로, 창의고안명수로 되게 하였다.

2015년에 진행된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에서 그가 출품한 유락염화비닐에 의한 고무로라는 1등으로 평가되었다. 그 후에도 그는 여러가지 가치있는 발명품과 기술혁신안들을 내놓아 전국과학기술축전,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는 경루동의 살림집을 안겨준 조국의 사랑에 보답할 일념 안고 오늘도 공장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해결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 * *



상식

얼굴의 변화와 건강

- 이마에 주름살이 갑자기 늘어나는것은 간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신호이다.

- 눈언저리가 검고 얼굴색이 어두워지는것은 콩팥의 부담이 크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때에는 폐지콩팥으로 국을 끓여먹는것이 좋다.

- 코끝이 붉거나 자주색을 띠는것은 혈압이 높은편이라는것을 말해주므로 소금섭취량을 줄여야 한다.

- 뺨이 붉은밤색을 띠는것은 고혈압증상이므로 담배를 끊고 혈압을 자주 재보는것이 좋다.

- 귀바퀴가 붉거나 자주색을 띠는것은 콩팥기능이 비정상이라는것을 말해주므로 당분섭취량을 제한하고 운동을 많이 하여야 한다.

* * *

두각을 나타내는 신진축구명수



국제 축구연맹 2025년 17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최우수선수상인 금뿔상과
최고득점자상인 금축구화상을
수여받은 유정향

지난해에 진행된 국제 축구 연맹 2025년 17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 팀은 4번째로 되는 월드컵을 쟁취하였으며 중앙공격수였던 10번 유정향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인 금축구화상과 최고득점자상인 금뿔상을 수여받았다. 유정향선수는 경기대회기간 3차례에 걸쳐 경기최우수선수로 선정되었으며 우리 팀이 기록한 25개의 득점가운데서 8개의 골을 성공시켜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초점을 모았다.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17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 세워진 역대 개인최고득점기록으로 된다.

금축구화상과 금뿔상은 유정향의 선수경력에서 처음으로 되는 상이지만 결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아닐것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가 대회 전 과정에 보여준 활약은 그 누구보다 훌륭하였다. 조별예선경기들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의 득점모기는 승자전단계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마로끄팀과의 16강자전에서는 3분경에 첫 득점을 성공시킨 것을 비롯하여 일본팀과의 준결승경기, 브라질팀과의 준결승경기에서 그는 여러 차례나 관건적인 대목에 골을 넣어 팀의 승리에 기여하였다. 유정향선수는 우리 나라 여자

축구팀의 기둥선수이다. 그의 높은 기술은 평시의 훈련에서 나타났던 것이다. 국가여자축구종합팀을 이끌었던 4.25선수단의 박성진감독은 《그는 속도가 빠르며 경기의식이 좋다. 각이한 정황에서의 정확한 공처리능력이 그의 특기라고 본다.》라고 말하였다. 평시에 훈련에서의 그의 이악성과 성실성은 좀해서는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엄격한 감독들도 감복하게 한다. 유정향이 축구와 인연을 맺게 된데는 그가 어릴 때 조국에 일어난 여자축구열풍과 관련된다. TV를 통해 2013년 동아시아컵여자축구경기대회에 참가

한 우리 나라 여자축구선수들의 경기모습을 보면서 정향이는 자기도 축구선수가 될 꿈을 가지게 되었다. 그가 축구에 첫걸음을 내짚은 것은 평성청년경기장에서였다. 당시 그를 선발하여 기초기술을 배워준 류경희감독은 정향이는 천성적으로 머리가 좋고 속도가 빨랐으며 남달리 이악하고 성실한 품성을 소유하고있었다고, 축구에 얼마나 극성인지 길을 오가면서도 공다루기를 하였고 어떤 때에는 남자축구팀에 속하여 공을 차겠다고 떼를 쓴 적도 있었다고 하였다. 꾸준히 훈련한 보람이 있어 정향이는 1년후부터 국내경기들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평양국

제 축구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받으며 축구기술을 연마해나갔다. 이 나날에 그는 평양국제축구학교 학생들이 출전하였던 2024년 동아시아축구연맹 15살미만 여자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자기의 특기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그는 이 대회에서 5개의 골을 넣었는데 이것은 팀이 기록한 득점이 11개라는것을 놓고볼 때 45.5%에 해당된것이다. 지난해 17살미만 국가여자축구종합팀에 망라된 그는 자기의 부족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훈련에 힘을 넣었으며 이 과정에 팀의 공격전술안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후날 금메달을 안고 돌아

온 정향이를 품에 안으며 그의 어머니는 《이 엄마는 너의 결심을 지지했을뿐인데 나라에서는 너를 이렇게 훌륭히 키워 엄마의 소원까지 풀어주었구나.》라고 감개해하였다. 지난해 정향이는 경기에 참가했던 선수들과 함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녔다. 그는 지난 5월에 있는 2026년 아시아축구연맹 17살미만 여자아시아컵경기대회에 참가하여 헤트트릭으로써 팀의 우승에 기여하였으며 최우수선수상과 최고득점자상을 수여받았다. 글 김성경 사진 조선중앙통신



유정향선수는 2026년 아시아 축구연맹 17살미만 여자아시아컵 경기대회에서도 최우수선수상과 최고득점자상을 수여받았다.



이름난 특산물

백두산들쪽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조국의 이름난 특산물중의 하나인 백두산들쪽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들쪽이라고 하면 백두산들쪽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것은 백두산지구에서 나는 들쪽의 맛과 약용 및 영양가치가 다른 곳에서 자란 들쪽에 비할바없이 높기때문입니다.
 들쪽재배를 하는 지역은 많지만 천연수림으로 덮여있는 백두산일대의 청신한 원시림과 개활지대에서 나는 들쪽에 대한 인기는 류다릅니다.
 하기에 많은 동포들이 조국을 방문하였다가 백두산에 올라서는 백두산들쪽의 약효에 반하여 들쪽과 그 가공제품들을 관광기념품으로 잊지 않고 가져가곤 합니다.
 어느한 재중동포는 자기 어머니는 조국을 방문하고 돌아올적마다 백두산들쪽을 가지고왔다고 하면서 자식들에게는 들쪽으로 단물과 정과를 만들어주고 아버지에게는 백두산들쪽으로 만든 술을 대접하곤 하였는데 오늘 백두산에 올라 백두산들쪽을 보니 어머니생각이 난다고 하며 지나간 나날들을 감회깊게 추억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들쪽을 리용하여온 력사는 매우 오래입니다.
 조선봉건왕조(1392년-1910년)시기의 문헌에는 들쪽은 우리 나라 갑산지방의것이 이름났는데

민간에서는 《들죽》이라고 부르며 딸기처럼 꿀에 재워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이 지방의 들쪽은 그 맛이 독특하여 정과를 만드는데서 으뜸이라고 하였습니다.
 들쪽나무는 우리 나라 백두산일대의 높은 지대에 무리를 지어 많이 자라고있으며 백무고원일대와 황수원일대, 금강산의 비로봉 등 높은 산지대에도 퍼져있습니다.
 들쪽나무는 보통 높이가 30~40cm, 최고 1. 2m 정도로 자라며 검은보라색이 나는 열매는 7월 하순부터 9월하순까지 익습니다.
 들쪽에는 다른 과일에는 없거나 적게 들어있는 생리활성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 약용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들쪽은 또한 보혈강장제와 청량제로도 널리 리용되어왔습니다. 들쪽에 포함되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시력저하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데 안토시아닌은 껍질에 약 90% 포함되어있어 들쪽을 껍질채로 먹는것이 좋습니다. 들쪽즙이나 말린들쪽은 당뇨병환자들의 혈당을 조절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밖에도 자외선에 의한 피부로화방지, 주름개선에도 효과가 있어 들쪽을 일명 《먹을수 있는 피부화장품》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오랜 력사적과정을 거쳐 계승되어온 백두산들쪽

리용풍습은 우리 인민의 감정정서와 미감에 맞게 더욱 발전되고있습니다.
 량강도의 주민들은 대대로 건강과 식생활에 들쪽을 빼놓지 않고 다양하게 리용하고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들쪽의 생열매를 류마치스, 통풍치료에, 들쪽과 딸기를 섞은것을 위병과 신석증치료에 특히는 어린이들의 시력을 개선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데 쓰고있습니다. 량강도산원에서는 산모들에게 들쪽을 적극 복용시키고있는데 건강회복이 빠르다고 합니다.
 이 고장 주민들은 들쪽을 날것으로 먹으면 약효가 더 있으며 말린포도처럼 말리워 먹어도 혈당을 낮추는 등 여러모로 좋다고 이야기하고있습니다.
 《물열매의 왕》, 《제3세대황금과일》로 되고있는 들쪽은 오늘날 그 수요가 급증하면서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고있습니다.
 해마다 8월이면 삼지연시의 무봉지구와 대흥단군, 백암군을 비롯한 백두산일대에서는 들쪽따기가 한창인 류다른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적기에 따들인 백두산들쪽은 가공기지들에서 여러가지 양상의 건강식품들로 가공되어 인민들의 식생활에 널리 리용되고있습니다.
 백두산들쪽에는 당분과 단백질, 조지방, 펙틴 등이 들어있어 청량음료나 당과류생산의 원료로 리용되며 열매껍질에 집중되어있는 안토시아닌은 질높은 천연색소로 쓰이고있습니다.
 들쪽가공기지로 유명한 량강도의 백두산들쪽가공공장과 삼지연들쪽음료공장에서는 해마다 수백t의 백두산들쪽을 저장해놓고 들쪽술과 들쪽단물, 들쪽발효초단물 등 건강음료들과 들쪽단묵, 들쪽사탕, 들쪽단줄임겉과자, 들쪽정과, 들쪽단줄임, 들쪽단물원액을 비롯한 들쪽가공품들을



생산하고있는데 그에 대한 인기가 대단합니다.
 지난해 비물질문화유산전시회에서 백두산들쪽과 그 가공제품들은 수많은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2026년 2월 백두산들쪽리용풍습은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동포여러분, 들쪽따기가 한창인 8월에 조국에 오시거든 조국의 자랑이고 특산인 백두산들쪽을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실장 조일경



천인공노할

일제의 죄악

6.10만세시위투쟁이 일어난 때로부터 100년이 되었다.

세월은 많이도 흐르고 세대도 바뀌었다. 그러나 6.10만세시위투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일제의 죄악을 조국인민들은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다.

3.1인민봉기 이후 통치체제의 위기를 느낀 일제는 종래의 《무단통치》의 총검우에 《문화통치》의 비단보자기를 씌워놓고 《중추원》에 친일파 몇명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조선사람의 정치참여를 장려하는척 하였다. 《민의창달》의 허울밑에 조선글로 된 신문, 잡지를 몇종 발간

하도록 허가해주고는 마치 조선사람과 일본인 사이에 차별이 없는것처럼 요란스럽게 떠들어댔다.

하지만 《무단통치》가 《문화통치》로 그 명칭만 바뀌었을뿐 총독정치의 진면모는 변하지 않았다. 달라진것이 있다면 통치수법이 보다 교활하고 악랄해진것뿐이었다.

조선봉건왕조의 마지막황제였던 순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은 더욱 격화되어 각계층 근로대중의 반일투쟁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1926년 6월 10일 마침내 대중적인 반일시위

투쟁이 벌어졌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망국의 설움과 침략자 일제에 대한 쌓이고쌓인 분노의 폭발이었다. 시위투쟁은 삽시에 전국각지로 확대되었으며 여기에 각계층의 광범한 군중이 참가하였다.

온 강토를 진감하며 세차게 벌어진 6.10만세시위투쟁은 빼앗긴 조국강토를 되찾고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대중적인 반일애국투쟁이었다.

우리 인민의 불굴의 의지와 애국적기개에 겁을 먹은 일제는 확대되는 시위투쟁을 진압하려고 발악하였다. 시위투쟁이 벌어지기 전에 벌써 각 도의 경찰대와 군부대까지 동원하여 삼엄한 경계망을 펴는 한편 4척의 순양함 해병들을 《의장병》이라는 명목밑에 상륙시켜 대기시켜 놓았다. 또한 수많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수백명을 체포하였다.

시위투쟁이 일어난 당일에만도 중무장한 군경들을 내몰아 160여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200여명을 체포구금하였다.

6.10만세시위투쟁 참가자들에 대한 일제의 류혈적인 탄압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일제의 범죄들가운데서 극히 일부에 불과한것이다.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 《조선사람들은 흑가이드 아이누족처럼 멸족시키면 죽하다.》, 이것은 사실상 일제의 조선사람말살론이었으며 통치의 기본책이었다.

일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적강점 전 기간 전체 인민을 말살할 흉계밑에 대중적학살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일제의 만행은 중일전쟁발발이후 더욱 로골화되었다. 무려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유괴, 랍치, 강제련행하여 죽음의 전쟁판과 고역장들에 내몰았다. 일제는 《지하대본영》과 비밀군사기지건설에 강제로 동원하였던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비밀보장》의 구실밑에 집단학살하거나 세군무기인체실험대상으로 삼는 극악한 살인범죄도 저질렀다.

일제의 만행중에서 20만명에 달하는 조선여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삼은것은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상처를 남긴 특대형반인륜범죄이다.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오늘까지도 일제에 의해 강요당한 불행과 고통의 뼈아픈 상처가 아물지 않고 남아있다.

일본의 과거범죄는 세월이 흘렀다고 하여 무마될수 없고 지워질수도 없다.

글 김지성

일제의 야수성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들의 일부



경효왕릉

개성시에 있는 역사유적들 가운데는 경효왕릉도 있다.

경효왕릉은 고려 31대 왕인 경효왕의 무덤으로서 경효왕의 무덤(현릉)과 그의 안해의 무덤(정릉)이 나란히 있는 쌍무덤이다.

경효왕은 고려 27대 의효왕(충숙왕)의 아들로써 1330년 5월에 출생하였다.

경효왕의 안해는 해산하다가 난산으로 1365년 2월에 죽었다.

경효왕은 안해가 죽은 다음

부터 안해의 무덤을 꾸리는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자신이 직접 지휘하였다.

무덤은 규모와 형식에 있어서 전례없이 방대하게 건설되었다.

무덤건설에는 전국의 수많은 장정들이 동원되었다.

경효왕은 1372년 6월 안해의 무덤곁에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무덤건설도 벌렸다.

1374년 9월 경효왕이 사망하자 나라에서는 1374년 10월 정릉의 서쪽에 장사하고 룡호를 현릉이라 하였다.

경효왕릉은 건축구성이 웅장하고 조각이 우수한것으로 하여 널리 알려져있다.

무덤은 지하에 돌로 주검칸을 마련하고 그우에 흙을 덮은 돌칸흙무덤으로 되어있다.

무덤구역은 고려의 전통적인 왕릉형식에 따라 4개의 단으로 구성되어있다.

경효왕릉에서 문관상은 2단에, 무관상을 3단에 배치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문관을 무관보다 앞에 내세웠다는것을 알수 있다.



석등



범조각상과 양조각상



망주석

일제는 1905년에 강도적인 방법으로 룡을 파괴하고 진귀한 유물들을 도굴해갔으며 그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두 룡의

수많은 유물들을 깡그리 도적질해갔다.

건축구성이 장엄하고 화려한것으로 하여 경효왕릉은 우리

나라 중세 무덤석조조형물 가운데서 대표적인것으로 알려져있다.

글 엄향심
사진 리영철



고려 31대 왕인 경효왕의 현릉(왼쪽)과 왕비의 정릉(오른쪽)



우리 인민은 태대손손 백두산을 숭상해왔다



백두산천지호반에서 발굴된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제단유적

백두산은 예로부터 조종의 산으로 불리웠으며 사회력사 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백두산을 하늘처럼 높고 신령스러운 흰산이라는 뜻에서 태백산, 불함산, 도태산, 백산 등으로 불리오면서 조선의 생기

가 일어번지는 근원이라고 여겼다.

백두산에 대한 숭상은 고조선 건국신화에도 반영되어있다.

옛 역사기록에는 단군의 아버지가 하늘세계에서 내려온 곳을 《태백산》으로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백두산에 대한 숭상이 원시조에 대한 숭배심

과 밀착되어있었다는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라고 할수 있다.

고려시기에도 백두산을 건국 성업의 터전으로, 조종의 산으로 숭상하던 인식은 그대로 계승되었다.

력사문헌에 의하면 고려의 건국자인 왕건의 조상들도 백두산에서 송악산으로 내려와 터를 잡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역사적으로 백두산은 단순히 자연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와 결부되어왔다는것을 웅변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국가건립과 존립에서 커다란 의의가 부여되어온 백두산은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영역에서도 큰 자리를 차지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벌써 오래전에 백두산이 우리 나라 산줄기의 근본, 조종의 산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힌 문헌기록들을 남기였다.

17세기에 나온 도서에는 《우리 나라의 모든 산은 백두산에서 발원한다.》라고 서술함으로써 백두산이 우리 나라 산악의 조종으로 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백두산이 우리 나라의 모든 산줄기들이 뻗어나간 조종의

산이라는 인식이 공고화되면서 백두산을 숭상하는 마음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에 대해서는 많은 문인들이 백두산을 직접 탐험하고 남긴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웅건장중한 산악들과 《천경》으로 부른 무연한 밀림이 있는 백두산은 변화무쌍한 천기로 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성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백두산에 대한 중세기의 기행 작품들은 출발지에서 백두산절정에 오르는 전 과정의 체험을 일기체로 구체적이고 생동하게 반영하였다.

《백두산기행》은 1764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왕복 1300여리에 걸치는 로정에 목격한 강과 산골짜기, 토질과 나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는데 특히 백두산련봉과 천지의 전경을 실감있게 묘사하면서 우리 인민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이 《백두산이 숭엄한 기운을 지니어 그 덕을 입은것》이라고 서술하였다.

어느한 기행작품도 수일간의 백두산탐험과정을 피력하면서 백두산천지호반과 해돋이광경을 능란한 필치로 보여주고 삼지연의 황홀한 정경묘사에 많은 지면을 돌리면서 여기야말로 신선경개도 비기지 못할 명승이라고 하였다.

기행문들과 함께 백두산풍토기도 이체를 띤다.

한 작품은 의인화수법을 리용하여 백두산일대의 기묘한 자연경치를 소개하면서 그앞에서는 제노라 하는 명승지들은

물론 하늘세계의 신선궁전도 《스스로 머리를 숙이거나 놀라어푸러질것》이라고 강조하고 그 풍요한 자연자원을 《부국안민》실현에 리용할데 대하여 주장하기도 하였다.

최근 조상전래로 백두산을 조종의 산으로 숭상해온 우리 인민의 높은 애국심과 풍속을 보여주는 귀중한 력사유적들이 새로 발굴고증되었다.

이번에 백두산과 그 주변의 넓은 지역에서 발굴된 유적들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무덤들로서 우리 선조들이 조상의 유골을 이곳에 묻어왔다는것을 확증해주는 객관적이며 유력한 물질사료로 된다.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의 연구집단은 백두산일대에서 력사유적들에 대한 조사 및 발굴사업을 심화시키는 과정에 이미전에 삼지연1호못 섬에서 발굴된 조선사람의 무덤과 형식이 같은 무덤들을 백두산천지호반에서 5기, 량강도 대흥단군과 함경북도 무산군지역에서 4기를 발굴하였으며 무덤들의 특성과 연원, 년대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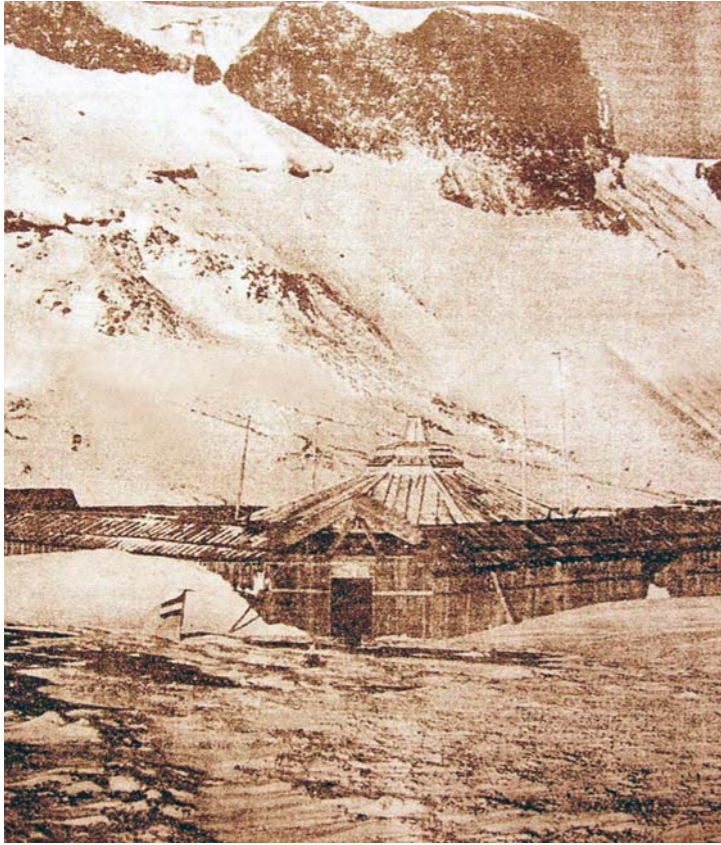
연구집단은 무덤들의 분포상태,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무덤특성, 장례법 등을 전면적으로 연구분석한데 기초하여 새로 발굴된 무덤들이 모두 봇나무껍질로 감싼 유골을 구멍이안에 안치하고 흙으로 된 봉분우에 전면 혹은 밀부분 절반정도를 돌로 씌운 형식으로서 량강도와 함경남북도일대, 중국동북지방에서 살던 발해사람들의 무덤형식과 장례법에 연원을 두고있으며 다른 민족들의 무덤형식, 장례법과는 본질적으로 차이난다는것을 확증하였다.

또한 무덤의 주인공들이 대체로 18세기중엽-19세기중엽의 사람들이라는것이 밝혀짐으로써 18세기중엽부터 량강도와 함경북도를 비롯한 백두산일대에서 살던 조선사람들이 조상의 유골을 천지에 옮겨 묻어왔다는 력사적사실이 처음으로 해명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학회에서는 백두산천지호반을 비롯한 량강도와 함경북도일대에서 조사발굴된 무덤의 주인공들이 발해의 무덤풍습을 이어



백두산의 장군봉마루에서 발굴된 대종교의 기본경전을 새긴 돌판과 대종교에서 단군을 의미하는 상징물인 삼각형의 푸른색옥돌판



1906년 백두산천지호반에 세웠던 종덕사

성인이 출현하기를 기원하여 묻은 대중교관관련유물들에 이어 이번에 무덤들이 새로 발굴됨으로써 우리 선조들이 력대로 수백리의 원시림을 헤치고 천지에 올라 조상의 유골과 유물을 묻으면서 백두산을 조종의 산으로 숭상하였으며 신성한 우리의 령토로 간주하여왔다는 명백한 력사적 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증되게 되었다.

국가의 자연보호정책에 의하여 백두산지구는 1946년 4월 백두산식물보호구로 설정된 때로부터 백두산자연보호구, 백두산혁명전적지특별보호구 등으로 되어왔으며 1989년 4월에는 세계생물권보호구로, 지난해에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되었다.

이처럼 백두산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대대손손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조종의 산으로 자리잡고있다.

은 조선사람들이라고 심의, 평정하였다. 백두산천지호반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냈던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제단유적과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 나라를 구원할

글 강소현
사진 문은남

유모아

또 주시구려

형님이 주는 과자를 받으면서 동생이 말했다.
《형님, 이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어요.》
그러자 형님은 《이 녀석, 만약 잊으면 어떻게 하라니?》라고 물어보았다.
동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 잊어버리거든 또 주시구려.》



* * *

민족유산 쇠뇌

우리 선조들의 무기제작기술에서 의의를 가지는 쇠뇌는 련발식무기개발의 서막을 열어놓은 세계적인 무기유산이라고 할수 있다.

쇠뇌는 기계적으로 동작하는 활이다. 일반적으로 활은 사람이 두손을 리용하여 화살을 쏘게 되어있는것으로 하여 그 사용능력과 사거리가 일정하게 제한되어있는데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계적인 작용을 도입하여 만든것이 바로 쇠뇌이다.

우리 나라에서 쇠뇌는 고

대에 제작되었으며 그것이 발전되어 삼국시기 특히 고구려인민들속에서 외래침략자들을 쳐부시는 싸움에 널리 리용하였다.

쇠뇌에는 단발식쇠뇌와 련발식쇠뇌, 통사식쇠뇌가 있다.

쇠뇌는 당시로서는 매우 발전된 무기였다. 하기에 다른 나라 무기전문가들도 동방에서 쇠뇌의 발전력사가 가장 오랜 우리 나라의 쇠뇌에 대하여 《그 구조가 간단하고 교묘한것으로 하여



현대사람들을 매우 놀라게 한다. 오늘의 보총처럼 동작하니 흥미가 있다.》라고 평하였다.

쇠뇌는 세계무기제작기술사에도 큰 흔적을 남기었다.

* * *



장기수풀이 (41)

장기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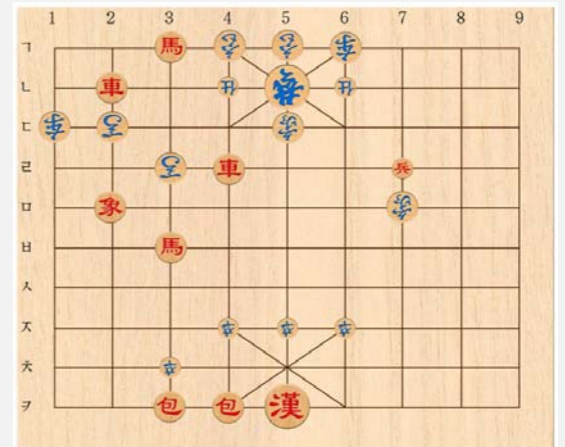
고수애즐

장기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의 《줄》을 몹시 아낀다는 뜻이다.

이 말은 《줄》의 위력과 중요함을 잘 알고 《줄》보위에 항상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장기수풀이 (40)에 대한 답

- 1) ㉓6말㉔5, ㉒5궁㉓6, ㉒3말㉒4, ㉒6사㉒5, ㉒5말㉒6, ㉒5포㉒5, ㉒1차㉒5 《장훈》
- 2) ㉓6말㉔5, ㉒5포㉒5, ㉒1차㉒5, ㉒5궁㉒5, ㉒4포㉒4, ㉒5궁㉒6, ㉒3말㉒5 《장훈》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한다.



등산놀이

(전호에서 계속)

2. 북성귀

그해 가을이 왔다.

추석이 지난 어느 화창한 날이었다. 무시울 사람들이 북성귀등산놀이에 떨쳐나섰다.

북성귀는 마을이나 부락끼리도 하고 이웃 마을과 함께 하기도 하는데 많을 때는 그일행이 100여명을 넘을 때도 있고 보통 40~50명, 적어서 10여명이 모여서 떠나기도 했다.

권세있는 량반부자들은 사인교(네사람이 메는 가마)에 올라앉아 전후좌우에 수많은 시중군들을 거느리고 나서는데 맨앞에는 7~8명의 잡이군들이 풍물소리를 울리며 나가고 그뒤로는 갖가지 음식과 샷자리, 천막, 술방구리를 지고인 집군들과 노래부르고 술시중을 들 기생들까지 해들거리며 따라선다.

하지만 백성들의 북성귀행렬은 차림새도 소박 할뿐 아니라 등산놀이기간에 늙은이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효성하며 이웃, 친척사이에 화목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위해주는 아름다운 기풍이 활짝 꽃피어서 몸단련과 함께 마음까지 아름다워지는 것이었다.

무시울북성귀행렬이 마을이름을 써서 높이 드러운 기발을 앞세우고 풍물을 기세 좋게 울리며 배고개너머 덕바위마을어구에 이르렀을 때였다.

길옆에 선 큰 느티나무그늘밑에 사람들이 모여 서있었다. 북성귀가 시작되면 이 마을사람들은 매일같이 성밖으로 나가는 북성귀행렬을 바래 우느라 늘 큰 항아리에 탁배기나 시원한 샘물을 담아두고 나오곤 하였다.

《어허, 좋구나! 오늘은 무시울이 떠나는 구나!》

《어서 목이나 추기고들 가게. 가는 길 곳곳마다 샘물이야 있겠지만 인삼뿌리를 씻어내린 송도샘물같은게 어디 있으며 정들이고 맛들인 송도탁배기같은것이 어디 있겠나.》

권하는 말이 하도 듣기 좋아 목이 마르지 않아도 저저마다 샘물 한바가지나 탁배기 한종지쯤은

기분 좋게 마시고 길을 다시 걷는다.

동대문을 빠져나오자 행렬은 북쪽으로 꺾인 길을 따라 화장사고개를 향하여 움직이었다.

최서방은 집을 떠날 때 있던 일이 문득 떠올랐다.

보패와 장쇠가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가 시중을 들겠다고 하는것을 최서방은 《아버지, 어머니걱정을 말어라. 아직 너희들 등에 업혀다닐 형편은 아니다.》 하고 밀막아버리려다가 장쇠는 기어이 데리고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봄에 남성귀를 갔다와서도 며칠간을 어디가 아프오, 어디가 걸리오 하면서 끽거리였었다.

몸이 든든치 못해보인다고 의원들이 보약이라도 좀 써보라고 할 때마다 최서방은 젊은 사람이 보약은 무슨 보약, 몸단련이 보약이지 하면서 북성귀때 먼길등산에 내세워서 몸단련을 시키리라 벌써 마음먹고있었던것이다.

떠날 때 최서방은 장쇠에게 말했다.

《이번길에 나는 너와 내기를 좀 하자고 한다. 너는 집을 지고가면서 아버지, 어머니시중을 들기로 하고 나와 어머니는 너한테 조금도 매달리지 않고 다녀오려고 한다. 그래, 어떠냐. 자신 있느냐?》

장쇠는 그래도 사내녀석이라고 말대꾸를 했다.

《행, 해보지요. 아버지도 천나이를 넘겼는데 마음같이 될줄 아세요?》

《이 녀석, 나이가 중한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하다. 넌 사내라는데 몸을 단련해야지 그런 약골을 어디다 쓰겠느냐. 사내가 나라를 지키는 군정노릇도 바로 못하면 사람값에 못간다. 보패는 며칠간 집과 집집승을 돌봐야 하겠으니 못가지만 너는 모든걸 제힘으로 하면서 몸단련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장쇠는 집을 지고 일행을 따라서게 된것이였다.

부지런히 걸어서 화장사에 이르러 점심을 치른 일행은 령통사에 들러서 하루밤을 묵으면서 등산 준비를 면밀히 갖추었다.

다음날은 등산로정중에서 제일 힘든 천마산 줄기를 에돌아넘어야 하기때문이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일행은 짚신감발을 든든히 하고 이고지는 짐들도 간편히 꾸린 다음 기세를 울리며 일찌기 길을 떠났다.

령통사에서 오관산(갓 다섯개를 벗어놓은듯한 려이은 다섯봉우리)을 옆에 끼고 서사정골을 따라 북쪽으로 가느라 천마산의 험준한 봉우리들이 보인다.

동쪽으로는 자라봉, 인달봉, 멀리 서쪽으로는 애기봉, 깃대봉을 비롯한 바위산들이 대홍산성 성벽으로 억척같이 련결되어있다.

수도 개성 방위성이었던 대홍산성의 남문을 통해 성안으로 들어서면 북쪽으로 열린 대홍골에 이르는데 여기서부터 맑고 시원한 공계수를 따라내려가면서 대홍사, 관음사를 거치게 되며 북성귀로정의 마지막지점인 천하명승 박연폭포에 이르게 된다.

못보면 한생의 한이 된다는 박연폭포에서 나라와 고향의 자랑과 긍지를 한껏 느껴보는것이 북성귀의 참뜻이고 등산놀이에 나설 때 누구나 가슴에 품는 큰 소원이다.

그러나 그 소원을 이루려면 아직도 멀고 험한 등산길을 헤쳐가야 하였다.

아슬아슬한 벼랑길을 돌아나가는 힘겨운 길이 앞에 있었다.

발아래는 수십길 벼랑이고 머리우에도 하늘에 치닿은 벼랑이다.

길은 겨우 화로 한개를 들여놓을만한 너비였다. 부득이 벼랑을 안거나 등지고 모로 서서 계걸음으로 지나가는수밖에 없었다.

벼랑을 안고 도는것을 《안돌이》, 등에 지고 도는것을 《지돌이》라고 하였다.

무슨 일에서나 담이 크다고 자부하던 최서방도 벼랑아래를 한번 흘끔 내려다보더니 오금이 지르르 저려들었다.

나이들면서 어느새 이런 겁쟁이가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자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어쩔 하고 큰기침을 하고나서 마음을 다잡았다.

그런데 장쇠와 마누라가 걱정이다. 짐을 진 장쇠가 먼저 지나가야 하는데 주저하는 기색이 엿보이었다.

최서방은 느슨히 웃으며 말을 걸었다.

《장쇠야, 앞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걸 봤지?》

《예, 봤어요.》
《안돌이든 지돌이든 네가 편리한대로 해라.

짐을 등에 졌으니 벼랑을 가슴에 안고 나가는데 편할게다. 아나네들도 눈섭 한오리 까딱 안하고 지나가는데 사내녀석이라는게...》

《체, 걱정 말아요. 내가 뭐 겁내는줄 알아요?》 장쇠는 우물거리면서 벼랑길에 들어섰다.

《애야, 덤비지 말고 조심해라.》

걱정을 담아 말하는 어머니 리씨의 치마아래 싶이 두무릎과 함께 사시나무떨듯하였다.

그럭저럭 장쇠가 벼랑길을 무사히 지나가자 최서방은 마누라가 머리우에 인 크지 않은 짐을 훌 집어내려 자기 등에 지고 《발아래는 보지 말구 나를 따라서우.》 하고는 벼랑쪽에 바싹 붙어 걸음을 내짚었다.

그러나 리씨는 최서방의 옷자락을 짹 거머 쥐고 두어걸음 옮기더니 다리를 부들부들 떨며 움직이지 못하였다. 두발이 땅에 딱 들어붙어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다.

먼저 지나간 젊은 축들은 깔깔 웃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위로의 말을 해주느라 애를 썼다.

《장쇠어머니, 아래는 아예 보지 말구 발을 옮겨짚으세요. 여기가 북망산길보다 더 험하다는데 그렇게 쉽겠나요.》

먼저 벼랑을 지나간 늙은이들도 수염을 내리 쓸며 꺾꺾거린다.

《허허... 저런 변이 있다. 령감님 옷자락에 만 매달리지 말구 어서 발자국을 떼시우. 염라 대왕께로 가겠는지 옥황상제께로 가겠는지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두눈을 딱 감구 살살 계걸음을 치시우.》

리씨는 젊은이들과 로인들의 부추겨주는 우스개말에 위안을 받으며 최서방을 따라 간신히 벼랑길을 지나 나오더니 안도의 모두숨을 내쉬었다.

《됐수다. 아무렴 그렇겠지. 한창때엔 널뛰기, 그네뛰기에서 해마다 상을 타던 보패어머니가 그럴수가 없지. 허허허... 이제 힘든 고비를 다 넘겼수다.》

일행은 《안돌이》, 《지돌이》구간을 지나 망월봉에 올랐다. 평퍼짐한 곳에 샷자리를 펴고 둘러앉아 쉬면서 다정히 음식들을 나누었다.

숨가쁜 등산길을 걸은 뒤인지라 모든 음식이 꿀같이 달고 넘긴 음식은 다 살로 가는듯했다.

일행은 대홍산성 남문을 지나 대홍골로 내려섰다. 드디어 천마산줄기를 타고넘은것이였다.

(다음호에 계속)

개성첨성대

개성첨성대는 고려왕궁터인 만월대의 서쪽부분에 있는데 현재의 위치와 《고려사》의 기록으로 보아 고려초기에 세워진 것으로 인정된다.

축대우에는 천문관측기구들이 설치되어있었다. 축대의 평면은 방형이며 그것은 돌기둥들과 그우에 올려간 돌마루로 이루어졌다.

축대의 높이는 2.8m이고 그 한변의 길이는 2.6m이다. 기둥들은 모두 5개인데 4개는 방형평면의 네귀에 세우고 1개는 그 북판에 세웠다.

고려에서는 건국초기부터 천문기상관측기관을 두고 천문대에서 관측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면밀하게 기록하였다.

1105년부터 고려말기까지 태양의 흑점을 관찰한 기록이 50여 건이나 된다. 그밖에도 일식, 달에 가리우는 행성, 혜성과 류성, 특이한 천체현상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이 전해지고있다.

개성첨성대는 당시 우리나라 천문관측의 상태와 중세기의 높은 돌가공기술과 건축술을 보여주는 역사유적이다.

개성첨성대는 2013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개성첨성대 모서리이음구조



개성첨성대 천정구조

글 전통진
사진 박창복

천연기념물 비파물범

비파물범은 몸길이가 1.5~2m이고 몸질량은 120~150kg이다. 대가리의 앞면은 좁고 귀바퀴가 없다. 등부위는 재색이면서 불규칙적인 검은색의 반점들이 많고 배부위는 누른색이면서 검은색의 반점들이 성글게 있다.

비파물범은 매해 봄부터 가을까지 라선시의 비파단앞바다에서 서식하면서 주로 물고기와 문어, 낙지와 같은 두족류들을 먹으며 산다.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비파물범은 국가적인 관심속에 적극 보호되고있다.

* * *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